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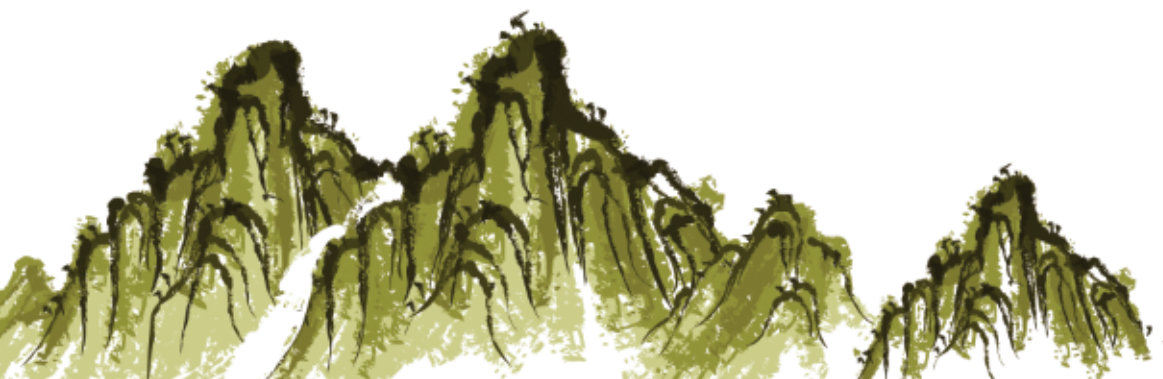
100세 시대, ‘자산의 연금화 전략’ 확대 전망

우리나라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은퇴 인구 증가 및 노인빈곤 문제 등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주택연금에 관한 인식 변화와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연금시장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자산의 연금화 전략’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와 100세 시대 연금 관련 금융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 · 양은희 연구위원

2014년 연금시장 전망

<p>자산의 연금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자산의 연금화 전략 확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활성화 : 퇴직금 및 은퇴자산의 연금화 수요 증가 - 주택연금 활성화 : 가입요건 완화 등 주택의 연금자산화 - 월지급식 상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 확대
<p>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자산의 투자 다변화로 자본시장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해외주식, 대체투자 등의 투자비중 점진적 확대 - (퇴직연금) 투자제한 규제 완화로 실적배당 상품에의 투자비중 확대 - (개인연금) 다양한 연금펀드상품 출시 및 수익률 제고로 투자 확대
<p>100세 시대 금융서비스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 자산관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자산관리서비스 및 상품 개발 확대 • 1:1 매칭 상담서비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자문업자 제도 도입 등 투자자문 일임업 제도 개선



글로벌 연금시장의 두 가지 트렌드는 공적연금 개시연령의 연장과 사적연금 활성화입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연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변경하고 사적연금에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2014년 연금시장의 주요 이슈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활성화 계획 등입니다. 그중 기초연금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현대대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면서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분을 제외한 대부분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10~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다소나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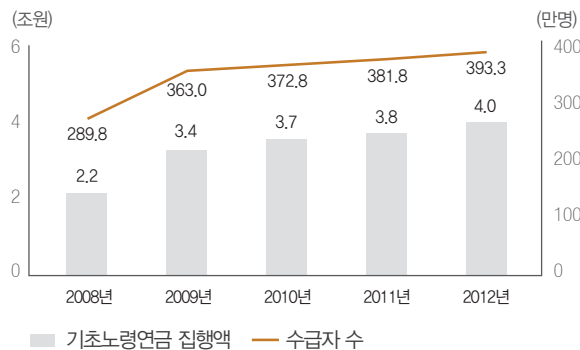
이고, 퇴직연금은 자본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거 주식투자 제한 규정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개인연금은 장기 투자자 수수료 할인 혜택과 펀드판매망 확대 등에 힘입어 펀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금자산의 자본 시장 투자 활성화 계획 시행으로 주식형 펀드와 주식 직접 투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표1]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계획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14~'18) 자산배분안 - 주식에 30% 이상 투자 • 투자 다변화 - 해외자산, 대체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투자 제한 규제 완화 - DC 주식 직접투자 허용 - DB 주식투자 한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펀드 수수료·보수 - 장기 투자자 할인 • 펀드슈퍼마켓 출범 - 펀드판매망 확대

자료 :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그림1] 기초노령연금 연간 집행액 및 수급자 수



자료:보건복지부

2014년 연금시장의 또 하나의 이슈는 정부의 자본시장 역동성 강화 방안 에 따른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계획입니다. 특히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관련 제도 변경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중기 자산배분 안(2014~2018년)에 따라 주식비중이 30%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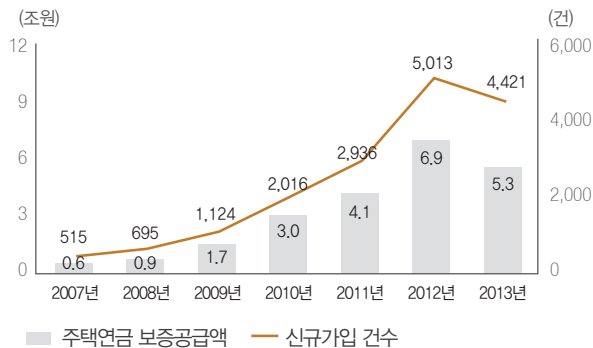
1. 자산의 연금화 전략 가속

우리나라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연금화 전략' 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진화, 다양한 월 지급식 상품과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등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노후 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한 상품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험료 적립 후 노후에 연금을 받으면서 필요할 때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금융자산은 일정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연금소득화의 사회적 수요 증가로 월 지급식 상품에 관한 관심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주택연금에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 상속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 확보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부모와 자녀 세대에 확산되면서 신규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주택연금 가입 유인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상품을 개발하여 현재 중신형만 있는 주택연금 상품 유형을 다양화해 최소한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부동산 중에서는 아파트 등 주거보다는 현금창출 능력이 양호한 상가, 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수요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그림2] 주택연금 연간 보증공급액 및 신규가입 건수



주: 2013년은 10월말 기준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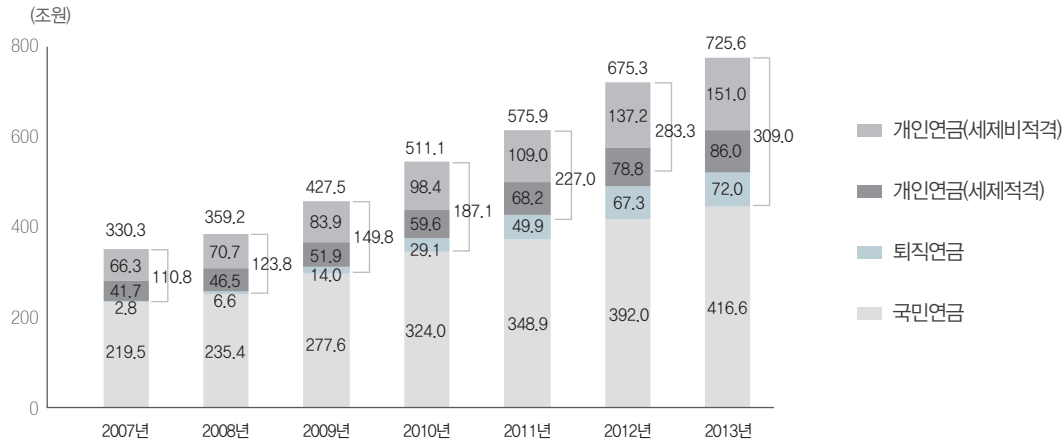
2.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기대

연기금 주식 비중의 확대와 퇴직연금 주식투자의 허용 등으로 인해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단기투자'에서 '장기투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제한규제 완화 등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제약요인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정부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등에 힘입어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금저축은 다양한 상품 출시 및 수익률 제고, 가입절차 단순화 등을 통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수수료 할인제도 등을 도입해 혜택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입 시 수수료 10%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한편 연금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가 곤란할 때에는 보험료를 납부 유예할 수 있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희된 계약을 부활할 때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림3] 3층 연금 적립금 추이



주: 2013.9월 말 적립금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3. 100세 시대, 연금 관련 금융서비스 확대 전망

100세 시대를 대비해 '생애주기 자산관리'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기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자산관리 서비스 및 상품 개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비자 주도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교가 가능한 개방형 원스톱 쇼핑채널, 즉 '펀드슈퍼마켓'이 2014년 3월 설립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금융상품 자문업'이 도입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투자권유대행인 및 금융회사 은퇴 인력이 요건 충족 시 자문업 전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편의성 증대 및 금융산업에서 조기 퇴직한 전문 인력의 고용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자격요건 강화,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수 리스크 헤지를 위해 고령층을 위한 특화 보험상품 개발 및 맞춤형 상품 공급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예를 들면,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종합 노후 건강 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 고령층의 일상생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등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고령층 등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연금 의료비 저축 계좌에서 의료비가 직접 지급될 수 있는 서비스와 고령층의 보험금 미청구 사례 방지를 위해 보호자 등이 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종합연금포탈 등 연금 관련 금융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연금포탈은 모든 공사연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상품 간 장단점, 상품 수익률 비교 정보, 세제혜택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 노후설계 서비스도 제공될 것입니다. 노후설계 교육 기능을 수행할 미래설계센터에서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1:1 매칭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산의 연금화 전략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

100세 시대, 정부는 자산의 연금화 전략, 연금자산의 자본 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확산, 연금으로의 수령 활성화,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유입 확대 제도 등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합리화 유도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이 변동하는 상품 개발 등 고객의 상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연금자산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友

